

# 선천성 심장병, 우리는

15세의 소년 조영민군(학생, 강남구 논현동). 그는 항상 밝은 미소로 주위사람들을 즐겁게 한다.

평소 몸이 약했던 그는 지난 '85년 12월 방학을 이용해 가족들과 함께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지부를 찾아 종합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심



# 그것을 이겨냈다.

장의 이상이 발견되었고 그후 종합병원을 찾아가 재검을 받은 후 수술을 하고 휴양이라는 긴 통로를 지나 이제는 정상인과 조금도 다른 없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

## 자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는데 솔깃

기자가 조영민군과 가족을 만나기 위해 논현동을 찾은 때는 짧아진 해가 사라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했던 어느 저녁나절이었다.

그의 어머니 유경숙씨(42세)는 따끈한 차와 인정이 넘치는 저녁상을 준비해 놓고 기자를 맞았다.

그들 가족의 어느 모습 속에서도 지난 겨울 그들을 할킨 아픈 상흔은 남아있지 않았다.



‘  
 검진 과정이 간단하고  
 많은 종류의 병을 알  
 아낼 수 있다는 데에  
 놀랐습니다.  
 ’

어떻게 온 가족이 함께 검사를 찾게 되었습니까?

『아는 친구 중에 건강관리협의회에서 회사동료들과 집단검사를 받았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적고 알지 못했던 자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할 수도 있다는데 귀가 솔깃했습니다.』

기자의 질문에 조군의 아버지 조인호씨(45세, 사업)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평소 영민이가 특별히 아픈 곳은 없으면서도 늘 기운이 없어하고 별로 힘들지 않은 운동도 오래 해내질 못했었습니다. 그렇잖아도 한번 검사를 해주려던 때에 그 얘기를 들었지요.』 조인호씨가 말하는 검진동기이다.

## 검사과정간단하고 많은 병을 알 수 있어 좋았다.

조군 가족이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지부를 찾아 심전도를 찍는 등 종합건강진단을 받던 날은 1985년 12월의 유난히도 쌀렁한 기분을 느끼게 하던 날이었다고 한다.

『가족 모두가 함께 진단을 받았습니다. 마침 아이들 방학이었고 해서 기회가 좋았지요. 얘기들은대로 아침을 굶고 가서 접수를 하고 채혈, 채뇨를 마치고 그의 심전도, X-Ray 등을 찍었습니다.』

어머니 유경숙씨는 검진받던 날을 지금도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검진과정이 간단하고 그러면서도 많은 종류의 병을 알아낼 수 있다는데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지요.』라고 본 협회 검사에 관한 소감을 말했다.

## 결과는 뜻밖에도 선천성 심장병이……

이렇게 검사를 마친후 조영민군의 가족은 집으로 돌아와 평소와 같이 생활했다.

- 언제쯤 결과통보서를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결과는?

『검사를 받고나서 보름쯤 되었을 때 었을 겁니다. 저나 집사람 그리고 막내 영진은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영민이는 심전도 소견상 이상이 있으니 정밀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리 몸이 약하다고는 하지만 어디 심장에 이상이 있으리라고야 생각했겠습니까?』 조군의 아버지 조인호씨는 기가 막혔던 그때를 이렇게 설명한다.

『새해를 맞이한 기쁨·희망 따위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심장병이래야 성인들에게 잘 생긴다는 협심증 말고는 잘 알지도 못했구요. 거의 무지한 상태에서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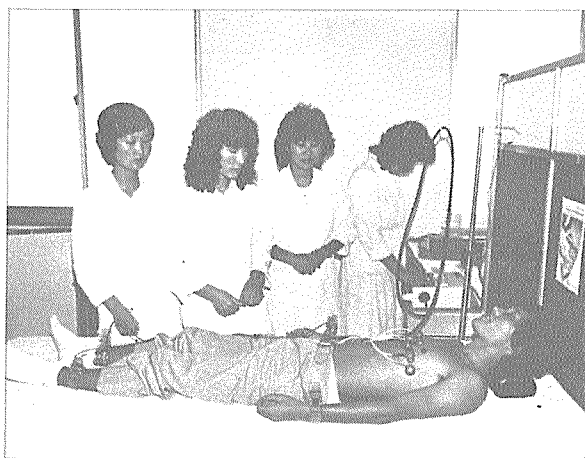
협에 전화로 문의를 했습니다. 정상준소장님과 통화를 했었지요.』 유경숙씨는 그때의 심정을 한숨쉬어 얘기하면서 건협의 검사결과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 학생심전도 집단검사정착이 아쉬워요

『심장병이라고 해서 모두가 심한 호흡곤란을 느끼고, 활동하기 어렵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평생을 모르고 지내기도 하고, 표면상으로 멀쩡하다가도 갑작스런 환경변화라든가 과격한 운동을 하거나 했을 때 발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조군은 어느정도 자각증상이 있기는 했지만, 심한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버릴 수도 있는 경우지요. 다행히 미리 검사를 받아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심각한 사태를 막을 수 있었지요.』 서울지부 정상준 검사소장은 이렇게 조군의 당시 상태와 심장병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학생심전도 집단검사의 정착이 어렵습니다. 그것이 실현되기만 한다면 전국적으로 조군과 같은 경우에 처해있는 많은 어린이, 학생들을 구할 수 있지않겠습니까.』 라면서 나름대로의 의견을 피력했다.

## 종합병원에서 정밀검사후 수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결과통보서를 들고 종합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곳



심장병이라고 모두가 호흡곤란이나 활동에 곤란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평생을 모르고 지낼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발작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에서 다시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심실중격결손이라는 선천성심장병이라고 말하더군요.』 조인호씨는 그때에 우리가 느껴야 했던 아득함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인다.

『바로 수술일정을 잡아서 며칠 후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견협에서 검사를 받은 이후 수술을 받기까지 불과 한달 사이의 시간이 흘렀을 뿐인데도 10년은 지난 것 같았어요.』 어머니 유경숙씨의 이 말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커다란 시련을 겪어야 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

## 수술은 성공, 온가족이 기쁨의 눈물을

『태어나서 정말 그때처럼 열심히 기도해본 적은 없었을 겁니다. 영민이가 수술대에 올려지고 몇시간인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오직 한가지 기도는 영민이를 살려달라는 말과 보통사람들과 똑같이 뛰어놀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유경숙씨는 두손을 꼭 모아뮌 채 마치 기도를 하는 것과 같은 어투로 이렇게 얘기했다.

하늘의 도움이, 그 기도의 효력이 나타난 것일까!

수 시간을 끌어오던 수술을 마치고 나온 의사선생님의 입에서는 『성공입니다.』라는 말이 떨어졌고, 조군의 가족은 일순간 명한 채 서있어야 했고, 그 다음엔 눈물이 그리고는 모두가 수술실 앞에서 부둥켜안고 기쁨의,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사후약방문격의 자세를 버리고 평소에 정기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친구들과 뛰어놀 수 있는 것이 가장기쁩니다.

『잠깐사이에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생명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저희들에 대한 사랑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조금 마른 체구의 조군은 나이답지 않은 어른스런 태도로 이렇게 얘기했다.

또 조군은, 『친구들과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할 수 있게된 것이 제일 기쁘구요. 그리고 내년에 치뤄야 할 고등학교입학 체력장에서 만점을 받을 자신이 있습니다.』라고 조군은 들뜬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얼마나 벽찬 기쁨이겠는가! 기자는 이해할 수 있었다.

## 행복은 건강으로부터 오는 것-

『건강관리협회 서울지부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 가장 깊이 느꼈던 것은 육체적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부터 건강을 위해 신경을 쓰는 일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일 계기로 해서 우리 회사의 직원들도 정기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작정입니다.』라는 조인호씨의 표정 속에서도 기자는 조용히 넘치는 기쁨의 미소를 발견할 수 있었다.

## 누구나 정기적인 건강검사가 필요하다

이제는 누구나,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 사후약방문격의 자세를 버리고 평소부터 정기건강검진을 해야 한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조인호씨의 확신에 찬 말을 들으면서 영민군의 건강을 되찾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아버지 조인호씨의 그 확신이 아니었을까하고 생각해본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수문장이 되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는 가족들의 환송을 받으며 논현동을 떠나는 기자의 걸음은, 그들이 되찾을 수 있었던 건강과 행복으로 하여 날아갈 것 같았다.

질게 깔린 어둠 사이로 작은 별들이 빛을 내고 있었다.

(이 은희 글)